



스위스 융프라우에 온 듯

스위스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13일 알프스 만년설에서 캐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인 빙하 코어(Ice core)를 살펴보고 신기해하고 있다.



“멋져요 코리아” 13일 박오에서 열린 해상쇼 ‘꽃피는 바다’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이 남해의 절경과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카메라에 담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즐거움 관람 줄서기부터

여수엑스포가 공식적으로 첫 개장한 12일, 전시관 예약 기기인 미디어카오크 앞에 길게 줄을 선 관람객들이 무얼 먼저 관람할 것인지를 고르고 있다.

꿈 같은 바다여행 여수의 하루는 짧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이틀째를 맞은 13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관람객들은 주제관 등 전시관을 돌며 수준 높은 전시를 만끽했고, 아쿠아리움과 대우해양로봇전시관에서는 환상적인 장면에 발길을 멈추기도 했다. 박람회장 곳곳 문화·예술 행사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에는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 어린이극장 등지에서는 환호성이 가득했다. 지난 12일 개막해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여수세계박람회의 화려한 속살을 소개한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물 로켓타고 우주로?

13일 박람회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상쇼 ‘꽃피는 바다’. 한 출연자가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플라이보드를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무한 감동 거대 스크린

◀한국관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스크린에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고압가스시설 무인화 너무 위험합니다!!

고압가스 관리소 주변 300m~500m 주택 공공시설 공장 근거리 위치

대부분 유럽의 경우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 ▶ 사고시 반경 1km이내 영향권

가스시설 위치가 산에 인접하여 대형 화재위험 노출

화재발생시 초동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 확산 우려

건물 내 다양한 설비 통합운영으로 가스폭발 위험성 증대

가스누설 보수, 유지보수, 중장비에 의한 파손, 제트화재 등

자연재해시 산간지역 가스시설사고 무방비

태풍, 폭설, 산사태 등으로 긴급조치 불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24시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94년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95년 대구 도시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101명이 사망을 하고, 201명이 부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던 대형 고압가스 폭발사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OO지역에 들어오게 될 가스공급시설을
무인화하겠다고 합니다.